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의 식생활에 대한 고찰

— 『반중잡영(泮中雜詠)』을 중심으로 —

차 진 아* · 한 복 진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전통음식문화전공

A Study on Sungkyunkwan(成均館) dining room and dietary culture described in Banjungjabyoung

Jin-A Cha† and Bok-Jin Han

Dept. of Traditional Food Culture, School of Culture & Tourism,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

Abstract

Sungkyunkwan was the highest national education institute of confucianism in the Chosun dynasty. From the historical view of foodservice in Korea, Sungkyunkwan dining room(進士食堂) might be the oldest systematized school foodservice and it was thought that the Korean word of dining room(食堂) was originated from this. The Sungkyunkwan dining room was built in the period of King Tae-jong(太宗) in 1413 and developed during 500 years through the Chosun dynasty. The dining room was not only an eating place but also providing the specific food culture of students. About 200 students studied in Sungkyunkwan and they lived together, and the government of the dynasty made many rules and by-laws to regulate them. Wonjeom(圓點) regulation was one of them. Wonjeom(圓點) was recorded in the register of attendance(到記) in the dining room and the students could obtain 1 point if they attended at the dining room in the morning and the evening in one day. If the students did not obtain the certain points of Wonjeom, they were not qualified for the national examination(大科). And there were so many eating customs and self-regulations in the dining room, they were referred in many literatures, such as 『the true records of the Chosun dynasty(朝鮮王朝實錄)』, 『Taehak-Ji(太學志)』 and 『Banjungjabyoung(泮中雜詠)』. In this study, poems in 『Banjungjabyoung』, about the Sungkyunkwan dining room and the eating customs such as the eating etiquettes, the daily 8 menu items(八簋), the special menus and the special day food, and the bestowal foods of King were reviewed.

Key words : food culture, eating customs, Sungkyunkwan dining room, Banjungjabyoung.

I. 서 론

조선조의 성균관은 태조 7년(1398)에 완공되어 조선왕조 500년간의 최고의 유교 교육기관으로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다.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과거제도

와 밀접히 연결되어 초시인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에게 우선적으로 성균관에 입학할 기회를 주었고 이들은 성균관에서 대과(大科)를 준비하기 위한 학습뿐만 아니라 유교적 지배 이념에 순응하도록 하는 정치 관료로서의 소양을 쌓았다(김운태 1970, 장재천 1999).

현재 성균관 내 대성전 앞뜰에 세워진 문묘비문¹⁾에 의하

†Corresponding author : Jin-A Cha, Tel : 063-220-2897,
E-mail : jinacha@hanmail.net

i) 조선초기의 성리학자인 변계량(卞季良;1369~1430)이 지었으며 문묘의 연혁을 기록한 비문이다.

면 조선초기 한양천도를 위한 준비 중에서 궁궐, 종묘, 사직단 건설 다음으로 성균관의 이전 건설이 중요한 관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문에 의하면 성균관은 1397년 3월에 짓기 시작하여 1398년 7월에 완성하였는데, 개성으로부터 이전 당시 성균관은 96칸이나 되는 방대한 규모였으며 이후에도 성균관은 조선 초기 관학 중흥정책에 힘입어 위상이 지속적으로 격상되었고 필요한 부속시설들을 추가로 증축하였다(장재천 2000).

성균관은 태조 7년(1398)에 서울의 숭교방에 대성전과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 양현고 및 도서관인 전경각 등의 건물이 완성되면서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이는 고려의 국가감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과거제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초시인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에게 우선적으로 성균관에 입학 기회를 주었다.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개국 초에는 150명이었으나, 세종 11년(1429)부터 200명으로 정착되었다.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을 상재생(上齋生)이라 하였으며, 조정의 선발 시험인 승보(升補)나 음서(蔭敍)에 의해 입학한 유생을 하재생(下齋生)이라고 하였다(신천식 1990).

유생의 기숙사 생활과 교육은 모두 국비로 이루어졌으며, 동재와 서재라고 하는 기숙사와 함께 진사식당(進士食堂)이라 불리는 전용식당이 있었다. 진사식당은 식문화적으로 볼 때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식당(食堂)이라고 하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여 오늘날 식당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되었으며, 200명에 달하는 성균관 유생들에게 계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대학급식의 효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균관 유생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독특한 풍속도를 만들어냈으며 식당에서의 예법이나 규칙도 엄격하여 나뉠대로의 규범과 식문화를 형성하였다. 특히, 유생들의 성균관 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 중에서도 원점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는 식당 출석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으로 이 원점에 따라 과거 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었고 이러한 엄격한 규칙을 통하여 성균관을 왕권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성균관에서의 유생들의 식생활상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반중잡영』을 중심으로 하여 유생들의 일상식 및 특별식과 유생들의 식사 예절 및 식문화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찰함으로써 성균관 유생들의 식생활 문화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대상 및 범위

1. 성균관 식생활 관련 문헌

본 연구를 위해 주로 고찰한 문헌은 영조대 성균관 유생이었던 윤기(尹楸)의 『반중잡영(泮中雜詠)』의 완역본,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었던 민중현(閔鍾顯)의 『태학지(太學志)』 및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었다.

『반중잡영』은 영·정조 시대의 학자인 윤기(1741~1826)가 영조 계사년(1773년)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유생으로써 20여 년간을 성균관에 머물면서 보고 느낀 것을 220여 수의 시로 표현한 것으로 오늘날 성균관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이다(윤기 1977). 본 연구의 기본 자료는 이민홍(1999)의 역주본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CD-ROM 국역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1995)에서 성균관 식당에 관한 117건의 검색자료를 함께 고찰하였다. 또한, 정조 9년(1785)에 편찬된 『태학지』에는 성균관의 건물 배치도 및 성균관 제도의 변천과정, 유생의 활동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성균관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써 총 14권 14책으로 이루어져 있다(민중현 1970).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영인본이 소장되어 있다.

2. 반중잡영(泮中雜詠) 자료 해제

『반중잡영』은 윤기의 유고 『무명자집(無名子集)』 시집 권 2에 수록되어 있다. 후손이 쓴 발문에 의하면 『무명자집』은 총 27권이었는데 현재 8권은 없어지고 19권만이 전해지고 있으며 1977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된 바 있고, 1999년에 완역본이 출간되었다.

반중(泮中)이란 반수(泮水)의 안이란 뜻으로 조선조의 성균관을 이르는 말로 성균관은 반궁(泮宮) 또는 태학(太學)이라고도 불렀다. 『반중잡영』의 체제는 칠언절구(七言絕句) 220수와 시 내용에 딸린 주석과 저자 서문으로 되어 있고, 앞 부분에는 서시에 해당하는 2수를 필두로 하여 38항목으로 분류된다. 38항목에는 학궁을 머리로 하여 대학촌에 준하는 반촌과 기숙사인 동·서재에서의 생활상 및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반중잡영』 38항목 중 저자의 의중에 따라 작가가 중시한 항목에는 수십 수를 배정했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항목에는 단지 한 수만 편찬한 경우도 있다. 특히 유생들의 학교 생활을 서술한 재중제절(齋中諸節)과 식당에 관한 고사(故事)는 15수나 된다.

윤기가 『반중잡영』을 저술할 당시 영정조 시대의 성균관은 조선 초기에 비해 위상이 다분히 실추된 상태였고 재정적 지원도 여의치 않아 퇴락해가고 있었다. 저자 서문에 윤기는 이러한 성균관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여러 문헌을 참

고하여 성균관의 내력과 실상에 대해 시와 주석을 통해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따라서, 『반중잡영』에는 조선왕조 실록을 비롯한 사료에서 보기 힘든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이 묘사되어 있으며 유생들의 학교 생활 중 식당(食堂)에 관한 고사 내용도 상당량에 달한다. 반중잡영 제21수부터 제35수까지는 「齋中諸節及食堂故事(제중의 여러 절차와 식당의 고사)」, 제36수부터 제42수까지는 「別味別貢等諸節(별미 별공 등의 여러 절차)」가 묘사되어 있고 제 131수부터 135수까지는 「不時引見親試(불시에 유생을 불러 친시를 봄)」 중 임금과 유생들의 식사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이민홍 1999),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식생활상은 다음 표 1과 같다.

Ⅲ. 본론 및 고찰

1. 성균관의 건물 개요

성균관의 시설은 명륜당, 문묘, 동·서재, 정록청, 진사식당 등 23개의 건물들과 2개의 비각을 구비하고 있었는데, 원래의 시설들은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소실되었다가 주요 건물들이 선조 34년(1601)부터 39년까지의 기간에 중건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이승원 1995). 성균관의 규모는 유생정원에 비해 대규모의 시설이었으며, 주요 건물을 구분하면 향사(享祀; 제사를 지냄) 시설과 교육시설, 그 외의 여러 가지 지원시설로 나눌 수 있다(장재천 2000).

표 1. 반중잡영에 나타난 성균관 유생들의 식생활상

내용 및 출처	구분	설명
식당 정원에 제한이 있어서 서열에 따라 입장 가능함 (제 33수)	원문 및 국역	食堂只許百人參 極擾競時數再三 舍菜大科煎兩日 始看新榜亦均覃 식당에는 다만 백 명만 들어가도록 허락하니 매우 혼잡할 때는 두 번 세 번 수를 센다. 사채·대과 두 날 전에 한하여 비로소 신방도 함께 자리하네.
	식생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당 입장 제한(유생 간부 6명과 유생 백명만 식당 입장 가능) ·식당직이 신방이나 급제자가 아닌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려냄. ·석채, 대과시 삼일간은 신방도 식당 입장 허용
식당 출석 점수(圓點) 기록에 대한 설명 (제 34수)	원문 및 국역	朝夕連參一點成 點圓三十作料程 直待準過三百點 不勞歲歲更留名 조석으로 연이어 식당에 가야 1점이 되니 원점이 30이면 과정(科程)이 된다. 곧장 300점이 넘어선다면 해마다 다시 이름 올리는 수고가 없다네.
	식생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당 출석시 도기에 수결하여 원점 기록(아침, 저녁 연속 참석시 1점의 원점을 받음) ·년 30점 만점시 원점과의 응시자격 부여하였고 원점 누적의 상한점수를 300점으로 정하였음. ·성균관 식당은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유생들의 교육 행정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
기침, 세수, 식사 등의 시간을 알리는데 북을 사용함 (제 21수)	원문 및 국역	藥房窗外鼓高懸 每日寥寥欲曙天 起寢一聲纔罷後 更呼洗手兩齋傳 약방 창 밖에는 북이 높게 걸려 있어 매일 새벽녘에 등등 울려 퍼진다. 기침이라는 한마디 마치자마자 다시 세수라 외치는 소리 동·서재에 전하네.
	식생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방(동재 가장 위에 있는 방 이름)의 서쪽 창문 바깥에 북이 걸려 있으며 기상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하였음. ·성균관 하인인 부목(負木)이 기침(起寢)과 세수(洗手)를 외쳐서 알리면 이에 따라 유생들이 일어나 세수함.
출석기록을 위한 도기의 준비 (제 22수)	원문 및 국역	食堂直到食堂時 抱券長呼奉硯兒 一鼓能令多士動 着袍束帶競相隨 식당직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도기를 안고서 길게 '봉연아'라 외친다. 한 북소리로 여러 유생을 움직이게 하니 옷과 띠를 착용하고 다투어 따르네.
	식생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고가 울리면 식당직(食堂直: 성균관 식당에서 유생에게 음식을 공궤하던 사람) 하인이 식당출결을 기록하는 도기(到記)를 가지고 음. ·재실의 심부름을 맡은 하인들이 도기차례(到記次例)가 되어 버루를 들고 와 기록하는 일을 도움.

표 1. 계 속

내용 및 출처	구 분	설 명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읍례를 행함 (제 23수)	원문 및 국역	負木高聲庭揖催 槐陰齋直咏徘徊 東西上下分行立 濟濟一時舉紉廻 부목이 소리높여 정음이라 재촉하고 해나무 그늘에서 재직이 배회하며 외친다. 동재·서재·상재·하재생들이 줄을 나누어 서서 모두가 일시에 읍하고서 식당에 들어가네.
	식생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목은 기숙사를 돌면서 '정음'이라 외치며 유생들에게 정렬하여 서로 인사하도록 재촉함. 유생들은 동재·서재·상재·하재생들이 서로 마주보고 읍(揖)한 뒤 식당에 차례로 입장함.
서열과 신분에 따라 식당에 착석하도록 함 (제 24수)	원문 및 국역	儀貌食堂極整齊 分門生進各東西 序齒升軒雙大坐 南班下寄亦相携 식당의 예절은 지극히 절도가 있어 생원 진사 나누어 동서로 들어가네. 연치대로 현에 올라 상으로 마주 앉고 남반과 하재생도 서로 이어 앉았다.
	식생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생들은 동헌(東軒 : 동쪽으로 처마가 나 있는 곳)과 서헌으로 각기 정렬하여 나이순서 대로 입장 서열과 신분에 따라 식당에 착석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생원은 동헌, 진사는 서헌에 앉았고 동서 행랑의 아래쪽에는 기재생이 앉았으며, 남헌에는 남반이 앉았음.
식당 출석의 확인 절차 (제 27수)	원문 및 국역	到記從頭次書 共留名押井間踈 直至曹司與色掌 擷題幾分未端於 도기는 첫머리부터 차례로 써 가는데 '井' 자 칸 속에 이름 수결(手決)을 함께 남기네. 조사(曹司)와 색장(色掌)까지 이르면, 몇 명이 왔는가 끝 부분에 적어둔다.
	식생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 전에 모든 유생들은 도기책에 성명을 쓰고 수결(일종의 서명)을 하였음. 하색장(유생 간부)이 출석 인원수를 확인, 기록함.
대사성의 식당 순시 (제 35수)	원문 및 국역	泮長入參或有時 向主南壁整威儀 下人前導郎官後 臨食巡當用故規 반장(泮長)이 때때로 식당에 참석하면 남쪽을 향해 주벽이 되니 거동이 단정하다. 하인이 전도하고 낭관(郎官)이 따르는데 식사전에 순시함은 옛법을 씀이라네.
	식생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장(泮長) 즉, 대사성이 식당 순시를 할 경우에는 북헌(北軒)에 앉았음 대사성은 유생들에게 음식이 모두 올려진 후 식당을 순시하고 다시 제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였음.
식사 순서 (제 28수)	원문 및 국역	每物既供勸飯呼 齊持匙箸若相須 進水退床次第唱 一聲起坐下來俱 모든 음식 올리고 '권반'이라 외치면 일제히 수저 드니 마치 서로 기다린 듯. '진수', '퇴상'이라고 차례로 외치며 '기좌'라는 한 소리에 일제히 물러나네.
	식생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생들은 식사의 순서대로 '권반(밥 드십시오)', '진수(물 올립니다)', '퇴상(상 물립니다)', '기좌(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라고 외치는 신호에 맞추어 식사를 시작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음.
식사 예법 (제 31수~제 32수)	원문 및 국역	流金盛熟日煩敲 不許食堂把扇搖 揮汗忍過朝夕頃 腐儒身世太無聊 쇠도 녹일만한 무더위일지라도 식당에서 부채질을 할 수 없다네. 땀방울 뿌리면서 조석으로 지내니 쓸모없는 유생 신세 아무 즐거움이 없구나.
	식생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당 내에서는 아무리 더위도 부채질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음.
식사 예법 (제 31수~제 32수)	원문 및 국역	典布一條鐵限同 鋪前不許往來通 惑有別般非得已 割開然後始抽躬 한 가닥 전포가 쇠덩이로 경계지음과 같아서 베를 펼친 앞으로 왕래할 수 없다네. 혹여 특별히 부득이한 일이면 베를 가른 연후에야 몸을 뺄 수 있었다.
	식생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당 입장 후에는 전포(식사시 밥상 대신 바닥에 퍼는 천)를 넘어가는 것이 금지됨.

표 1. 계 속

내용 및 출처	구 분	설 명
일상식 상차림 (제 25수)	원문 및 국역	麻布前鋪用大盤 於焉羅列授之餐 却使一人供一物 須叟八簋自全完 마포를 앞에 펼쳐 밥상 대신 사용하고 죽 벌여서 음식물을 받는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음식을 올리는데 잠깐 사이 팔괘(八簋)는 절로 가득 찼도다.
	식생활상	· 밥상 대신 전포(典布)라고 하는 마포를 개별 사용 · 팔괘(八簋)라 하여 밥·국·장·김치·나물·젓갈·좌반·생채의 8가지 음식 제공 · 각 음식별로 담당하는 다모(茶母)가 정해져 있었음(식모, 채다모, 탕다모, 어전 등)
유생들의 식사 배식 (제 26수)	원문 및 국역	紅團領史載平巾 拱立上頭檢飭類 茶母首奴名色多 喧譁聲裏走粉糲 홍단령에 평정건 쓴 아전 맨 앞에 공수한 채 바쁘게 검칙한다. 다모·수노 명칭도 많아 떠들썩 시끄러운 속에 분주하게 움직이네.
	식생활상	· 아전은 음식분배를 감독하고 수노(首奴)들은 다모들의 분배를 지시함. · 식모(食母)·채다모(菜茶母)·탕다모(湯茶母)·어전(魚塵) 등 다양한 명칭이 있었음.
년중 제공된 끼니 (제 42수)	원문 및 국역	釋奠春行始點心 秋過釋奠更休尋 白飯數匙藿數片 輾能長日慰滄漭 봄 석전이 행해져야 비로소 점심이 나오고 가을 석전을 지나면 다시 중지한다. 흰 쌀밥 몇 술과 콩잎 몇 조각으로도 긴 하루의 피곤함을 달랠 수 있다네.
	식생활상	· 춘채(춘기석전) 음력 2월부터 추채(추기석전) 음력 8월 사이에만 점심을 제공하여 이 기간은 1일 3끼를 제공하였고 그 외 기간에는 1일 2끼만을 제공하였음. · 조선 후기 무렵에는 점심 식사 대신 식대를 지급하기도 함.
대별미의 제공 (제 36수)	원문 및 국역	大別味供一六朝 全牛列鼎不蕭條 詳湯心炙諸般品 沙碗盛來隨所要 대별미는 일육 아침에 올라오는데 소를 잡아 성찬을 만드니 초라하지 않다. 양탕에 심자 등 여러 음식들 사기그릇에 담겨 오니 요구한 대로네.
	식생활상	· 매달 1회 대별미(大別味)라 하여 육식을 제공하였으며 유생들의 주문에 따라 쇠고기 음식 중 원하는 메뉴(양탕, 심자 등)를 제공하였음.
소별미의 제공 (제 31수)	원문 및 국역	小別味隨三八爲 有名無實乃如期 殘羹冷炙不盈筋 用大乾魚佐飯資 소별미는 24일에 나오지만 유명무실(有名無實)한지 오래이다. 소량의 국과 식은 구이는 젓가락도 안차는데 건어를 대신하여 자반꺼리 삼는다네.
	식생활상	· 매달 1회 소별미(小別味), 또는 별자반(別佐飯)를 제공하였음. · 조선 후기 무렵에는 특식을 돈으로 지급하였으며, 차츰 유명무실해짐.
명절 별공 (제 38수~제 39수)	원문 및 국역	一年名節幾相逢 朱漆平盤盛別供 除却中秋寒食外 每將牢具慰羈蹤 일년에 명절(名節)을 몇 번이나 지내는가 붉은 칠한 밥상에 별공(別貢)이 올라오네. 추석(秋夕)·한식(寒食)을 제외하고는 고기 음식 차려 놓고 타향살이 위로 한다.
	원문 및 국역	· 명절(正朝, 上元, 三日, 端午, 初伏, 流頭, 七夕, 九日, 冬至)에는 별공(別貢)이라 하여 고기음식을 제공하였으나, 후대에는 이 또한 돈으로 지급 · 주칠평반에 고기음식(將牢)을 차려 제공함 · 한식과 추석에는 별공이 없었음
	원문 및 국역	除日至於正月三 別供每日足肥甘 旅窓錢遜愁何在 留與齋中作美談 섣달 그믐에서 정월 삼일까지 별공으로 매일 맛있는 음식 풍족하네. 객지에서 근심없이 새해를 맞이하며 재중에 남아서 미담을 나눈다.
	식생활상	· 정월명절 전후에는 풍족하게 별공이 제공되어 유생들의 시름을 달래주었음.

표 1. 계 속

내용 및 출처	구 분	설 명
삼복 특식 제공 (제 40수)	원문 및 국역	初伏家獐從曰些 勝如中伏兩甘瓜 最是西瓜未伏日 暫時能使爽喉牙 초복의 개장국 비록 적다고 하나 중복의 참외 두 개보다 낫다. 말복의 수박이 가장 좋으니 잠시 목구멍을 상쾌하게 하네.
	식생활상	· 삼복에는 개장국, 참외, 수박 등의 특식 제공
하절기 얼음 제공 (제 30수)	원문 및 국역	三庚日氣極炎蒸 夕食堂時輒設水 每前一塊如拳大 勝似空談腳踏履 삼복날엔 날씨가 찌는 듯 더워 저녁 식사시간엔 얼음을 준비하네. 각 개인 앞에 한 덩어리 얼음 주먹만 하니 맨발로 얼음을 밟는다는 공담보다 좋으리.
	식생활상	· 영조 대에 이르러 삼복 더위를 식히고자 얼음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방주 지급 (제 41수)	원문 및 국역	別供曾末一杯管 房酒故名喜不亡 朔望每間一鎔半 預教齋直捧來忙 별공이라 하여도 한 잔 술 못마시나 방주라는 옛 이름 다행히 남아 있다. 삭망에는 보름에는 매 칸마다 일선(一鎔) 반을 주니 미리 재직(齋直)을 시켜 재빨리 가져오네.
	식생활상	· 월 2회 재실의 각 방마다 약간의 술을 지급하였는데, 대개 지급 날짜를 앞당겨 받아가곤 함.
국기일 소찬 제공 (제 41수)	원문 및 국역	弗祧國忌有時遭 下隸書頌舉紙高 豆腐代魚薑代醃 共言行素獨吾曹 때때로 조묘(祖廟)가 아닌 국기일에는 하인들이 종이에 써 높이 들어 알린다. 어물 대신 두부요 젓갈 대신 미역이니 소찬 먹는 이는 우리들 뿐이라 하네.
	식생활상	· 국기일에는 고기 반찬이 없는 소찬(素饌)을 제공함.
친시(親試)에 앞서 임금과 유생들이 함께 식사하였음 (제 131수)	원문 및 국역	臺上肆筵設食堂 鼓懸檜樹格其鐺 始終諸節渾依樣 咫尺堪謔綴耿光 춘당대 위에 자리를 깔아 식당을 설치하고 북을 전나무에 매달고 북을 친다. 시종일관 모든 절도는 법식을 따른다지만 지척에서 임금의 은택을 속임질 하네.
	식생활상	· 춘당대에 야외 식당을 별도로 설치하였고, 식고를 춘당대 가의 작은 전나무에 옮겨 매달고 식당지기가 북을 치면, 동·서재의 당번인 부목(負木)이 유생들을 불렀음. · 야외 식사는 다소 무질서한 모습을 보임.
친시(親試) 때 임금에게 진상된 식사 (제 132수~ 제133수)	원문 및 국역	平盤紙覆御供陳 饌品不殊器物均 泫長手擎趨跪進 爭瞻天笑是時親 평반을 종이로 덮어 임금께 바치는데 음식물 품수도 다르지 않고 기물도 같다. 대사성이 손으로 받들어 무릎 꿇고 진상하는데 임금 웃음 서로 보려고 다투니 이 때가 신기해서라네.
	원문 및 국역	· 임금이 상은 평반(平盤)을 사용했으며 사기그릇에 음식을 담아 백지로 덮어 대사성이 받들어 올림. · 임금에게도 유생들과 동일한 품수의 음식이 제공됨.
임금의 하사 음식에 대한 유생들의 답례 (제 135수)	원문 및 국역	奉退御床衆裏行 同知管事大司成 君餘徧向諸生示 到處環觀溢喜聲 임금 상을 받들고 물리는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로 가니 동지관사 대사성도 끼어있다. 임금께서 남겨주신 덕 유생들을 향해 보이니 도처에서 둘러 보고 기뻐하는 소리 넘쳐나네
	식생활상	· 임금이 식사가 끝나면 대사성이 임금 상을 퇴상하여 유생들에게 돌려 보임.
임금의 하사 음식에 대한 유생들의 답례 (제 135수)	원문 및 국역	有隸自天酒及肴 黃封激醞八珍交 謝箋一道明朝進 詣闕携相出序膠 임금님이 내리신 술과 안주 술은 잔에 넘치고 온갖 안주가 오가네 한통의 사전(謝箋)을 다음날 아침에 올리려 예궐하기 위해 줄지어 성균관을 나선다.
	식생활상	· 임금이 하사한 술과 음식에 대해 유생들이 답례의 글을 올림.

향사 시설로는 대성전(大成殿; 공자를 비롯한 儒賢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 동·서재(東·西廡; 유현들의 위패를 나누어 모셨던 곳), 계성사(啓聖祠), 향관청(享官廳), 전사청(典祀廳), 수복청(守僕廳), 제기고(祭器庫), 악기고(樂器庫)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시설은 명륜당(明倫堂; 강의실), 동·서재(東·西齋; 유생들의 기숙사), 존경각(尊經閣; 도서관), 비천당(丕闡堂; 과거 보는 장소), 하련대(下輦臺; 무과시험 장소), 정록청(正錄廳; 성균관 관인들의 사무실), 육일각(六一閣; 성균관 내 활과 화살 등 대사에 사용하는 각종 기구를 보관하는 곳), 벽송정(碧松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 시설로 식당(食堂; 유생들의 식사 및 모임 장소), 양현고(養賢庫; 물품 보관 및 후생기관), 포주(庖廚, 주방), 서리청(書吏廳; 성균관 관인들이 사무를 처리하는 곳), 향청(享廳), 직방(直房), 문고(門庫), 일양재(一兩齋), 벽입재(闢入齋) 등이 있다. 그림 1은 성균관 내 주요 건물 및 식당과 동·서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장재천 2000).

2. 성균관 기숙사 및 식당의 규모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개국 초에는 150명이었으나 세종 11년(1429년)부터 200명으로 정착되었다(신천식 1990). 성균관에서의 유생들의 생활은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자치적인 활동기구로 학생회에 해당하는 재회(齋會)가 있었다. 명륜당 아래에 위치한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는 성균관 유생들이 거처하던 기숙사에 해당되는 곳으로 모두 28개의 방으로 되어 있으며, 동재와 서재의 각 14개의 방 가운데 가장 아랫방 2개를 하재(下齋)라고 불렀다.

상재(上齋)에 있는 24칸의 방에는 1칸당 2명씩의 유생이 기거하여 총 48명의 유생이 거처하였고 하재 4칸에는 총 20명의 유생이 거처하였다. 상재에는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이 거처하였기에 이들을 상재생 또는 상사(上舍)라고 하였다. 한편, 조정의 선발 시험인 승보(升補)나 음서(蔭敍)에 의해 입학한 유생을 하재생(下齋生)이라 하였다. 태학지 권 6의 기재조(寄齋條)에는 태학의 동서 하재(下齋)에 서울과 지방의 유학(幼學) 20명을 두고 이름하여 기재생(寄齋生)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민중현 1970). 하재생은 사학생(四學生)이나 유생(幼生)으로서 하여 서울과 지방의 각 도에서 재능과 행실이 뛰어난 사람을 추천 받아 성균관에 입학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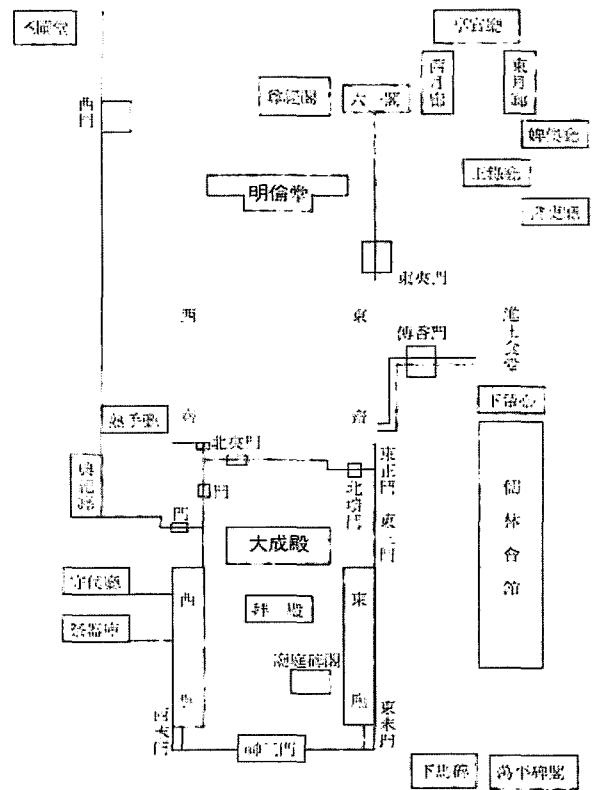


그림 1. 성균관 전도(全圖)에서 나타난 식당 및 동·서재의 위치

하였다. 동재와 서재의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한 나머지 유생들은 성균관 내 다른 부속건물인 향관청(享官廳)에 기거하거나 성균관 밖의 일종의 대학촌이었던 반촌(泮村)에 거처하였다.

진사식당은 명륜당 동쪽에 남향 33칸 규모로 태조 7년(1398)에 명륜당과 동시에 건립되었다. 식당은 성균관 내 동재의 동쪽과 정록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면이 행랑을 이루고 있다(그림 2). 북쪽의 행랑은 당상관(堂上官; 조선시대 정3품 이상의 관료)이 들어와 참석할 때 앉는 곳이었으며,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행랑은 상재생들이 앉았고 동서 행랑 아래 각각 서너칸 행랑을 마련하여 하재생들이 앉도록 하였고 남쪽 행랑은 남반(南班)ⁱⁱ⁾ 유생들이 앉도록 하였다.

성균관에서 수학할 수 있는 유생의 정원은 200명이었지만 진사식당의 정원은 보통 때에는 100명으로 제한되었고 석채(釋菜)ⁱⁱⁱ⁾나 대과(大科)가 있는 3일간에만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정조실록 권6). 이와 같이 성균관의 큰 행사가 있는

ii) 서출로 생원, 진사가 된 사람들로 정조 연간에는 서출에게도 과거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이들을 남반이라고 불렀다.

iii) 석채는 석전제(釋奠祭)를 일컫는 것으로 본래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석전제도가 그대로 전해진 것으로 先聖(周代의 堯·舜·禹·湯·文王 등을 일컫음)을 숭앙하기 위해 문묘에서 거행하는 국가적인 대제이며, 음력의 봄 2월(春秋釋奠)과 가을 8월(秋期釋奠)의 첫 정일(丁日)에 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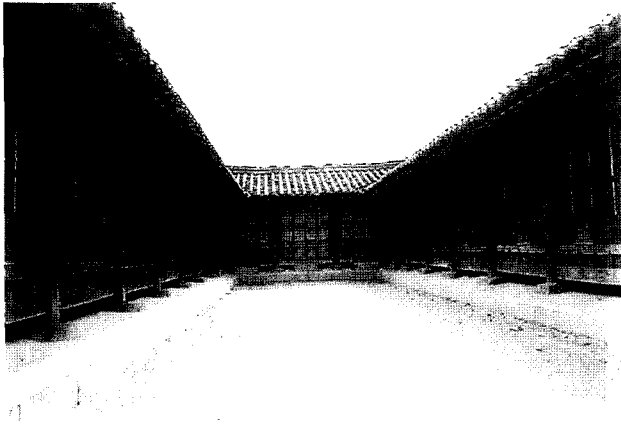


그림 2. 성균관 내 진사식당(進士食堂) 전경

때 외에는 유생 중 간부급에 해당하는 장의와 색장 6명을 제외한 100명만을 식당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반중잡영 제 33수에 따르면 진사식당의 정원이 초과할 경우 급제자와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주었다고 한다(이민홍 1999). 장의와 색장은 재회(齋會)라고 불리는 일종의 학생회 간부로서 재임(齋任)이라고도 하는데, 재임은 동재와 서재 장의(掌議), 상색장(上色掌), 하색장(下色掌) 각각 2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에서도 장의가 학생회장 격에 해당되는 최고 간부로 그 권한도 상당하였다. 만약 평상시에 유생들이 많이 모여 서로 들어가려고 하여 시끄러우면 식당직이 여러 차례 숫자를 세서 신방(新榜: 생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와 공부하기 시작한 신참)들을 가려내었고, 이처럼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은 서열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는 일종의 불문율이 존재하였다(정조실록 권32).

3. 식당 출석과 원점제도

정원이 한정된 성균관 식당에서 유생들이 식사를 하고자 서로 경쟁하였던 것은 식사의 횟수가 유생들에게는 과거시험의 자격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성균관 식당의 정원을 100명으로 제한하였던 것은 식당이 좁아서라기보다는 수용인원에 제한을 두어 원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줄여 대과(大科)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과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한 의도였다(정낙찬 1992).

성균관에서는 유생들의 교육에 관계되는 일종의 교칙인 교육 절목(節目)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였는데 이 중에서 원점 절목(圓點節目)이라는 것이 있었다. 원점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은 조선초기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였는데 태종 11년(1411)에 성균관에서 교육받는 유생의 수가 20여명으로 국가에서 성균관 교육을 장려하는 취지에 어긋나므로 관시(館試)는 원점 30점, 향시(鄉試)는 원점 20점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으며(태종실록 권21), 태종 17년(1417)에 예조에 서 올린 원점에 대한 규정을 윤택하게 이르렀다(태종실록 권23). 세종 원년(1418)에는 생원들이 거제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국가가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서 원점과 고강을 만들었으며(세종실록 권2), 중종 20년(1525)에는 태학관은 작은 조정이기 때문에 모든 선비들이 관학에 나와야 자신의 재능을 성취할 수 있고 학문뿐만 아니라 사우와 함께 지내면서 탐마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중종실록 권55). 원점절목은 세조 5년(1460)에 처음 만들어져 시행되다가 영조 19년(1743)에 일부 개정되었고 정조 2년 때에 이르러 '생원원점절목(生進圓點節目)'으로 완비되었다(정조실록 권3).

이처럼 성균관에서는 유생들의 거제를 장려하기 위해 식당에 도기(到記)라고 하는 일종의 출석부를 비치해 두고 유생들이 조식의 식사 때 수결(手訣), 즉 서명을 해야 각각 반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연속으로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만 1점의 원점을 받을 수 있었다. 만일 1일에 1식만 참여한 경우에는 원점 통계에 합산이 되지 않았다(서신석 1982). 반중잡영 제 34수에 나타난 과정(科程)이란 원점과(圓點科)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원점과는 조선시대 성균관과 사학(四學)^{iv)} 유생들이 치렀던 과거시험의 일종으로 원점을 찍은 유생에게 강경(講經)과 제술(製述) 자격을 부여하였다. 원점과는 도기(到記 : 성균관이나 사학유생들의 출석일수를 기록한 장부)를 식당에 비치하여 두고 일정한 점수가 되면 과거를 볼 자격을 주었다고 해서 도기과라고도 불렸으며, 계절에 따라 춘도기(春到記)와 추도기(秋到記)로 나누어졌다.

원점의 날짜는 8월 1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관례이고 식당에 아침, 저녁에 연속으로 출석하게 되면 원점(1점)을 찍도록 하였다. 년중으로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를 채운 사

iv) 사학(四學)이란 조선시대 중앙의 4부(部)에 설치된 관립교육기관으로 동부학당·서부학당·남부학당·중부학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부학당(四部學堂)이라고도 불렸다. 사학은 성균관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중등 정도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방법·교육내용 등에서는 성균관과 비슷하였다. 따라서 성균관의 부속학교와 같은 성격을 띠었으며, 성균관과는 달리 문묘(文廟)를 설치하지 않고 교육만을 전담하였다. 학생정원은 학당마다 100명이었으며 재사(齋舍 : 기숙사)제도를 마련하여 학비 및 운영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였다. 국가에서는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학전(學田)·노비·잡물 등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연안에 있는 여러 섬들의 어장(漁場)을 주어 그 세(稅)로써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다. (출처 : 인터넷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com>)

람에 한하여 대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속 점수가 누적되어 총 300점을 넘으면 장부를 따로 설치하여 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시험치는 것을 허락하였다. 원점의 점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점수 기준이 달랐는데 성종 연간에는 150점, 중종 연간에는 100점으로 하였다. 원점제도는 거재 유생들의 식당 근태 성적을 평가하여 과거시험의 자격기준을 삼도록 한 일종의 내신성적에 해당하는 것이다(장재천 2001a).

한편, 성균관 유생들의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하거나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면 처벌을 위한 여러 벌칙 중에 원점을 깎는 원점삭(圓點削)의 규정도 존재하였다. 이 외에도, 상재생이 하재생을 과실을 벌하기 위해 성균관 내 학생회 역할을 하였던 재임의 승인을 거쳐 기일식손(幾日食損), 즉, 몇 일 간 식당 출입을 금지시키는 벌칙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기일식손이 많아지면 출재(出齋)라고 하여 자치적인 퇴학조치도 가능하였다(장재천 2001b).

이처럼 원점제도는 평소 유생들의 학문과 평소 인간관계를 권장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과거제도와 원점제도를 연계 시킴으로써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 조정의 정책에 의해 성균관 식당에서의 급식은 당시 유생들의 식생활뿐만 아니라 성균관 학업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식당의 규율 및 식사 예법

1) 유생 일동 정렬 및 읍례

성균관 식당에서 식사의 시작은 북소리로 알렸으며, 성균관 기숙사에 있는 북은 재고(齋鼓)라 하여 동재 한쪽에 걸려져 있었다(그림 3). 매일 아침 날이 밝기 전에 한 번 쳐서 점호용으로 사용하였고 북을 두 번을 치면 유생들이 세수하고 의관을 갖추고 후 독서를 하였으며 북소리가 세 번 나면 동서재의 유생들이 나란히 줄을 서서 읍례를 한 후 식당으로 들어갔다(김재득 1975).

반중잡영의 제 21수~23수를 보면 아침 점호나 식사시간을 알리는 북소리를 따라 유생들이 기침하여 세수한 후 유생들이 의관을 정제하고 명륜당 뜰에 질서정연하게 정렬하여 절하라는 소리에 따라 서로 절한 다음 식당에 들어가도록 하였다(이민홍 1999). 여기에는 유생들의 기숙사 생활과 식사를 돕는 하인들의 명칭(재직, 부목, 사환, 식당직 등)도 함께 나열되어 성균관에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먼저, 기숙사에서 밥 짓고 물 길는 일을 하는 하인들을 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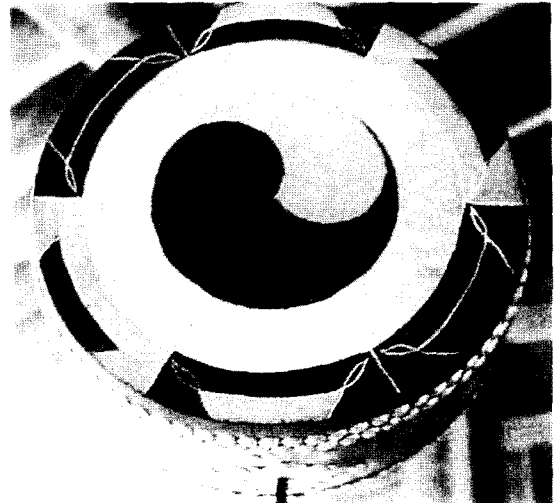


그림 3. 기숙사의 재고(齋鼓)

(負木)이라 하였는데 이들은 동재·서재 각 4명이 근무하였고 돌아가면서 당일의 당번(일차부목)을 맡았다. 반중잡영에 의하면 이들은 난방비에 해당하는 약간의 임금을 지급 받았는데 겨울에는 한 달에 십오민(十五緡)을, 여름에는 그 반을 받았다고 한다. 여기서 민(緡)이라는 단위는 그냥 꾸러미를 말하는 것인지 화폐단위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전(錢)과 같은 화폐단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숙사의 잡일을 맡아서 하는 하인들은 재직(齋直)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대개 성균관 소속 하인들의 자식으로 어린 아이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식당직(食堂直)은 성균관에 소속된 하인으로 식사의 여러 절차나 음식제공을 맡았다. 식당직은 식사시간이 되면 도기를 들고 재직을 소리 높여 부르면 재직은 도기와 버루를 받들어 원점 기록의 보조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도, 사환이 있어서 잔심부름을 맡아 하는 축일사환(逐日使喚 : 그날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장의의 심부름을 주로 하는 장의사환(掌議使喚 : 학생회 최고 간부인 장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등으로 불렸다.

2) 식당 입장 및 착석, 음식 제공

성균관 내의 교칙은 매우 엄격하였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거나 비열한 언행이나 나태함 등과 같이 선비의 행실에 맞지 않는 모든 행동에 대해 처벌을 하였다. 식당에서의 예법도 예외는 아니어서 식당에서 차례를 지키지 않거나 떠드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장재천 2000).

식당에 입장할 때에도 각각 입장하는 문, 식당 내 행랑에 착석하는 위치가 모두 정해진 법도에 맞아야 했다. 식당에 입장할 때에는 생원과 진사들이 나이 순서대로 줄을 맞추어 생원은 동쪽 문을 통해 동헌에 들어가 앉았고 진사는 서쪽

문을 통해 서헌에 들어가 앉았다. 식당은 4면의 행랑으로 되어 있어 동헌·서헌·남헌·북헌이라 하였는데, 이는 4채의 독립 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 그렇게 불렀다. 동서 행랑의 아래쪽에는 기재생이 앉았고 남헌에는 서출로 생원, 진사가 된 남반(南班)들을 따로 앉도록 하였다. 이처럼, 유교적 신분질서에 따라 식당에 앉는 자리도 과거에 급제한 등급, 나이, 출신에 따라 엄격하게 서열화하였다.

때로는 식사하는 것을 순시하기 위해 성균관의 최고 책임자였던 대사성이 식당에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대사성은 북헌(北軒)에 자리하여 유생들의 식사 내용을 돌아보고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반중잡영 제 35수에서 주벽(主壁)이란 사람을 양쪽에 앉히고 가운데 앉은 주장이 되는 자리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동헌과 서헌에 생원과 진사가 정렬하고 남헌에 남반이 앉은 상태에서 대사성은 남쪽을 향하고 있는 자리를 묘사한 것이다(이민홍 1999). 낭관(郎官)은 각 관청의 당하관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6품의 관원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성균관에 소속된 정 6품의 전적(典籍)을 의미한다.

3) 출석 기록

유생들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도기(到記)에 출석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도기는 우물 정(井)자 모양 빈 칸의 표로 되어 있는데 각 칸에 유생들은 자신의 이름과 수결(手決)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sign)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반중잡영 제 27수에 묘사되어 있다(이민홍 1999). 여기서 반수(班首)란 성균관 유생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며, 조사(曹司)는 문서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로 대개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을 말한다. 이처럼 출석한 유생 명단 기록이 끝나면 재회 간부인 하색장(下色掌)은 모두 몇 명이 출석했는지를 기록하였다.

4) 식사 절차 및 식사시 예법

출석 기록이 끝나고 음식이 모두 올려지고 나면 '권반'이라고 하는 소리에 따라 일제히 식사를 하였고 식사 후에는 '진수'라 하여 물을 올렸으며 상을 물릴 때에는 '퇴상'이라고 하였고 '기좌'라는 소리에 동시에 자리를 뜨도록 하였다. 또한 식당에서는 아무리 더위도 부채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전포가 일단 펼쳐지고 나면 함부로 오갈 수 없었다. 혹시 부득이하게 이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식당직에게 전포를 가르게 한 후에야 나갈 수 있었다.

5. 유생들의 식사

1) 일상식

유생들이 모두 식당에 입장하여 나이 순대로 서로 마주보고 단정히 앉으면 각자 앞에 마포 한 장을 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게 되며 여기에 마포를 펼쳐 밥상 대신으로 사용하였다. 유생들에게는 총 8가지의 음식의 팔괘(八簋)가 제공되었다. 괘(簋)란 본디 곡식을 담는 제기의 일종으로서 외양은 원형이고 음식물을 담는 내부는 방형으로 각져 있는 그릇을 말하는 것으로 '팔괘'란 성균관 유생들이 사용한 여덟 개의 음식그릇 또는 여덟 가지의 음식을 말하며, 성균관 식당의 메뉴는 밥, 국, 장, 김치를 비롯하여 나물, 젓갈, 좌반, 생채의 8가지 음식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좌반(佐飯)이란 밥의 옆에 따른다는 의미로써 밥반찬으로 짬짬하게 만든 조기, 고등어와 같은 염장 생선류를 일컫는데 좌반은 성균관 재정상 매끼마다 제공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좌반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성균관 유생들의 식사는 삼첩반상이 기본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상식은 소박하고 간소한 소찬이 제공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Cha & Han 2003).

100명의 유생들에게 8가지의 음식을 제각각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였으며 음식 분배에도 매우 분주하였다. 성균관 관리들은 관복으로 흉단령과 평정건을 착용하였으며 북헌(北軒) 아래에서 서서 하인들에게 음식 올리는 것을 감독하였다. 노비들 중의 가장 우두머리인 수노(首奴)는 각 음식 분배를 맡은 하인들을 다그쳤으며 식사 배분하는 시간은 매우 분주하고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성균관에 소속된 여자 하인들은 다모(茶母) 또는 다비(茶婢)라고 하였으며 하는 일에 따라서 명칭도 달라서, 채소에 관련된 일을 하면 채다모, 국을 끓이는 일에 관련되면 탕다모 등으로 불렀다. 또한 어전(漁廩)이란 어물전, 해산물을 파는 가게를 말하나 여기서는 해산물을 요리하는 하인을 뜻한다.

매일의 끼니 수는 시기에 따라 달랐으며 춘기석전(春期釋奠)과 추기석전(秋期釋奠)의 사이에는 점심이 제공되어 하루에 세끼를 제공하였다(안상원 1975). 조선 후기 무렵에는 점심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기석전이 지내는 음력 8월 이후에는 춘기석전인 음력 2월이 돌아올 때까지 아침과 저녁 두끼만 제공되었다.

2) 특별식

유생들의 식사 메뉴는 8가지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특별한 날에는 별미(別味)나 별공(別貢)이 제공되기도 하였다. 또한, 삼복과 같이 더운 날에는 얼음이 제공되었고 국기일(國忌日)에는 소찬(素饌)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

먼저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별미 메뉴로는 매달 6일에는

대별미(大別味)라 하여 쇠고기가 제공되었으며, 24일에는 소별미(小別味)라 하여 생선을 소금에 절인 좌반(佐飯)이 제공되었다고 한다. 대별미를 제공하기 위해 매달 소를 잡아 양탕(群湯)과 심자(心炙)와 같은 메뉴를 제공하였는데 양탕이란 소 위로 끓인 탕을 말하며, 심자란 쇠고기 안심구이를 뜻한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성균관에서 수십·수백 마리씩 소를 도살하는 행위는 학풍을 어지럽히므로 이를 엄금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유생들에게 지급하던 쇠고기의 양이 상당했음을 짐작케 한다(선조실록 권35).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나라의 큰 행사에 있어서도 소보다는 돼지를 제물로 사용하였을 만큼 농경에 중요한 노동력이 되었던 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처럼 성균관 유생들의 별식으로 소고기를 음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유생에 대한 우대정책이 상당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유생들은 고직(庫直 : 고지기) 즉, 주방에 관련된 하인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음식을 미리 요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유생이 요구한대로 별미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찍이 성균관 급식에 선택식을 실시한 증거가 되어 매우 흥미롭다.

하지만 이러한 별미는 반중잡영을 편찬할 무렵인 조선 후기에는 대별미는 음식 대신 돈으로 지급하였고 소별미도 유명무실해졌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식재료 조달의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개개인에게 제공되던 대별미 대신 돈 8문(文)을 지급하는데, 10文은 1錢과 같은 금액으로 반중잡영보다 50여 년 후에 만들어진 목민심서 권 2 律己六條 節用에서 복숭아 2개가 1전이었다는 기록을 감안해 볼 때 이는 매우 적은 액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소별미는 매달 한번 좌반을 대신하여 고기국이나 구이를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조선후기 무렵에는 제공량도 적고 먹질 것 없이 제공되기에 오히려 자반보다 못하여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다. 더구나 소량의 국과 식은 구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오늘날 단체급식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적정 1인분량 제공의 어려움이나 적은배식 미비로 인한 고객만족도 저하 현상이 당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하겠다.

이 외에도 正朝, 上元, 三日, 端午, 初伏, 流頭, 七夕, 九日, 冬至 등 매번 명절에는 별공(別貢)이라고 하여 음식을 큰상에 담아 제공하였다(안상원 1975). 특별히 선달 그믐에서 정월 삼일까지는 매일 풍족하게 별공이 제공되어 객지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유생들의 시름을 달래주었고, 한식과 추석에는 별공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무렵에는 예전과 달리 별공도 점차 줄어들고 이 또한 돈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초복에는 개장국, 중복에는 참외 두 개, 말복에는 수박 한 개를 주었는데, 이 역시 후기 무렵에는 돈으로 지급되

었다. 그리고, 영조 대 이후부터는 삼복날의 더운 날씨에는 저녁식사시간에 개인마다 얼음을 한덩어리씩 지급하였다.

한편, 술은 별공이 제공되는 때라도 마시지 못하였지만 삭망 즉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방주(房酒)라 하여 각 방 한칸마다 일선(一錢) 반에 해당하는 양의 술을 지급하였다. 일선이란 술을 되는 그릇인데 다섯 잔 분량에 해당하는 양이었으며, 재중 유생들은 원래 지급 날짜를 앞당겨서 술을 받아가곤 하였고, 조선 후기 무렵에는 이 또한 돈으로 지급되었다.

한편, 나라의 기일(아무 임금의 제삿날)에는 소찬(素饌)이라 하여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반찬을 주어 어물 대신 두부, 젓갈 대신 미역을 제공하였다. 이 때에는 식당직이 이를 기숙사에 미리 알리도록 하였는데 유생들은 소찬 먹는 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임금의 하사 음식

조선조에는 성균관 유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시에 유생들을 불러 임금이 직접 시험장에 나와 과거를 보는 친시(親試) 제도가 있었다. 이 때에는 시험에 앞서 임금이 유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하였으며, 친시 후에는 술과 안주를 베풀어 유생들을 격려하였다.

태학지에는 ‘當宁(正祖) 五年申丑春正月, 遺士官于泮宮, 問儒生多少, 命大司成率能講能製儒生來待于集春門外, 設食堂於春塘臺, 以奎章閣堂郎爲試官, 試講製施賞有差’라고 하여 임금이 반궁의 유생을 부르고 춘당대에 식당을 차려 격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민종현 1970, 정조실록 29).

반중잡영 제 131수의 기록에도 임금이 친시(親試)를 행할 때에는 춘당대에 자리를 깔아 야외 식당을 설치하고 동헌, 서헌, 기재소에 이르기까지 앉을만한 곳에 모두 자리를 펴고 식고(食鼓)도 춘당대 근처의 나무에 옮겨 매달아 북을 쳐서 식사를 알렸다고 하였다(이민홍 1999). 이 때 유생들도 임금 곁에 정좌하여 식사를 하였는데 곁보기에는 반듯한 듯 법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상당히 무질서한 모습이 라고 묘사하였다.

이 때 임금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평소 유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품수도 같고 동일한 그릇에 제공하였다. 다만 마포 대신 평반(平盤)이라 하여 다리가 달리지 않은 둥글고 납작한 칠그릇 쟁반에 음식을 담고 이를 종이로 덮어 대사성이 손으로 받들어 무릎을 꿇고 임금에게 올렸다. 임금의 식사가 끝나고 나면 대사성이 다시 임금의 상을 받들어서 물리고 유생들에게 임금이 남긴 음식을 돌려 보여주면 유생들은 이를 임금의 은덕으로 생각하고 기뻐하였다.

식당이 파하고 나면 강론과 제술을 겸하는 시험이 행해지고 급제자를 발표하고 이들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친시가 모

두 끝나게 되는데, 친시 후 임금은 술과 안주를 하사하기도 했고 유생들은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모두 글을 써서 대궐문 밖에 나아가 이를 올렸다.

이외에도 태학지나 실록의 기록에 보면 종종 국왕이 하사하는 연회나 반찬을 지급하여 유생들의 학업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수시로 하사된 품목의 예로는 세종 9년(1427)에 염진어석(鹽陳魚腊: 소금에 절인 생선 포), 성종 23년(1492)에 어주진미(御廚珍味: 수라간에서 만든 진미), 영조 8년(1732)에 전복 3 첩(貼), 팔소어(낙지) 5미, 대구어 20미, 건치(乾雉: 마른 꿩고기) 10수, 편포(片脯) 10장, 생치(生雉) 10수, 생어(生魚) 10미, 영조 18년(1742)에 생육(生肉) 등, 정조 7년(1783)에 어석(魚腊) 2 架(시렁), 정조 8년(1784)에 진찬(珍饌: 임금이 하사하는 음식) 등이었다. 또한, 과일이 하사되기도 하여 영조 8년(1732)에 건시(乾柿: 꽃감) 3첩(貼), 호도 3두(斗), 백자(柏子: 잣) 3두(斗), 영조 18년(1742)에는 음력 5월에서 7월간에 얼음을 주었으며, 유생들에게 얼음이 제공되는 것이 이후에 정례화 되었다(안상원 1975).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의 식생활상을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반중잡영』의 식당고사에 나타난 유생들의 식생활 풍속과 문화를 주로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태학지, CD-ROM 국역본 조선왕조실록 자료 검색을 실시하였다. 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반중잡영』의 체제는 칠언절구(七言絶句) 220수와 시 내용에 딸린 주석과 저자 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학궁을 머리로 하여 대학촌에 준하는 반촌과 기숙사인 동재 서재에서의 생활상 및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특히 유생들의 학교 생활을 형상한 재중제절(齋中諸節)과 식당에 관한 고사(故事)는 15수로 유생들의 식생활상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귀한 사료라 하겠다.
2. 성균관 식당의 급식은 유생들의 식생활뿐만 아니라 성균관 학업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성균관의 정원은 시기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200명 정도였지만 진사식당은 나이순에 따라 100명만 입장할 수 있게 제한을 두었으며, 유생들의 성균관 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점제도라고 하는 식당 출석점수를 도입하여 일정한 점수가 되는 유생들에게만 원점과(原點料)에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유생들의 학문과 평소 인간관계를 권장하고 과거제도와 원점제도를 연계시켜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체제 강화에

활용하였다.

3. 성균관에서는 식사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식고를 사용하였으며 아침 점호나 식사시간을 알리는 북소리를 따라 유생 일동 정렬 및 읊례를 한 후 식당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또한, 식당에서의 예법도 매우 엄격하였고 식당 입장 및 착석, 음식 제공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거나 떠드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4. 유생들이 모두 식당에 입장하여 나이 순대로 서로 마주 보고 단정히 앉으면 마포를 펼쳐 밥상 대신으로 사용하였고, 유생들의 일상식은 팔괘(八簋)라 하여 밥, 국, 장, 김치, 나물, 젓갈, 좌반, 생채의 8가지 음식의 소박하고 간소한 소찬이 제공되었다.
5. 유생들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도기(到記)에 출석을 기록하고 수결(手決)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원점을 매겼다. 또한, 음식이 모두 올려지고 나면 '권반'이라고 하는 소리에 따라 일제히 식사를 하였고 식사 후에는 '진수'라 하여 물을 올렸으며 상을 물릴 때에는 '퇴상'이라고 하였고 '기좌'라는 소리에 동시에 자리를 뜨도록 하였다. 식당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부채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전포가 일단 펼쳐지고 나면 함부로 오갈 수 없었다.
6. 유생들에게는 별미(別味)나 별공(別貢)이 제공되었으며 매달 6일에는 대별미(大別味)라 하여 쇠고기가 제공되었으며, 24일에는 소별미(小別味)라 하여 생선을 소금에 절인 좌반(佐飯)이 제공되었다. 대별미로는 양탕이나 심자와 같은 쇠고기 요리가 제공되었고 만일 선호하는 음식이 있을 경우는 미리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식을 제공하기도 하여 유생들의 우대정책이 상당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식재료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별미는 음식 대신 돈으로 지급하였고 소별미도 유명무실해지게 되어 유생들의 불만을 가져왔다. 또한, 하절기 더운 날씨에는 얼음을 제공하였으며, 초복에는 개장국, 중복에는 참외, 말복에는 수박을 제공하였고 국기일(國忌日)에는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소찬(素饌)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
7. 성균관 유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금이 직접 시험장에 나와 과거를 보는 친시(親試) 제도가 있었는데, 시험에 앞서 임금이 유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하였으며 친시 후에는 술과 안주를 베풀어 유생들을 격려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성균관 진사식당은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역사적 원형이 되었다는 점 외에도 조

선조 500여 년간에 걸쳐 독특한 식생활 양식과 규범을 창출해냈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식문화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제언으로써 반중잡영의 국역본을 비롯한 성균관에 관한 여러 고문헌에 나타난 식생활상에 대하여 식문화 전공자들의 시각에서 보다 세세하게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문 헌

- 김운태 (1970) : 조선왕조행정사(근세편). 박영사 서울.
- 김윤곤 (1970) : 이조후기에 있어서 성균관의 변천과 개혁. 대동문화연구 7:1-4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 김재득 (1975) : 성균관의 일과소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논총 3:231-241.
- 민중현 (1970) : 태학지 영인본. 을곡문화원 서울.
- 서신석 (1982) : 15세기 성균관의 기능연구. 한국학연구 3(1):35-74.
- 선조실록 권151, 선조35년 6월 庚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1995) : CD-ROM 국역본 「조선왕조실록」, 서울시시스템주식회사.
- 세종실록 권2, 세종 즉위년 12월 戊子.
- 신천식 (1990) : 조선전기 성균관 교육운영의 제도사적 연구 -학생정원과 수학년한을 중심으로-. 명지사학회 3:41-72.
- 안상원 (1975) : 성균관 양현 재정 연구. 채동문화사 서울.
- 윤기 (1977) : 무명자집(반중잡영).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서울.
- 이민홍 역주 (1999) : 완역 반중잡영, 조선조 성균관의 교원과 태학생의 생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승원 (1995) : 성균관의 교육시설 연구. 교육문제연구 7: 193-207.
- 장재천 (1999) : 조선시대 국왕의 성균관 교육 진흥책 연구. 교육학연구 37(3):19-37.
- 장재천 (2000) : 조선조 성균관 교육과 유생문화. 아세아문화사 서울.
- 장재천 (2001a) : 조선전기 성균관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의 사회적 변화. 교육학연구 39(1): 295-312.
- 장재천 (2001b) :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문화 일고. 한국사상문화학회지 11:257-289.
- 정낙찬 (1992) : 조선시대 성균관의 출석관리. 교육학연구 30(2):17-30.
- 정조실록 권3, 정조 1년 6월 丁未.
- 정조실록 권6, 정조 2년 8월 己未.
- 정조실록 권29, 정조 14년 2월 乙亥.
- 정조실록 권32, 정조 15년 5월 丁丑.
- 중종실록 권55, 중종 20년 10월 丙午.
-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6월 癸巳.
-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5월 己巳.
- Cha JA, Han BK (2003) : A study of operation of Sunkyun-kwan(成均館) dining room and estimation of food cost. Korean J Food Culture 18(5): 457-465.
- (접수일: 2003년 9월 3일, 채택일: 2003년 11월 12일)